

‘광주 돌풍’ 멈추다

광주 FC, 울산과 홈경기 0-1 패배... 무패행진 5경기서 마감



그라운드를 훑쓸
던 광주발 돌풍이
잠시 멈췄다.

광주 FC가 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2012 K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장신 공격수 김신욱에게 일격을 당하며 0-1로 패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상주와의 개막전 승리를 시작으로 이어져 왔던 광주의 무패행진도 5경기에 서 막을 내렸다.

득점없이 전반전을 마감한 광주가 대공세를 펼치며 울산 골문을 겨냥했다. 후반 2분 김동섭의 유팔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비껴나간 것을 시작으로 광주의 슈팅 퍼레이드

가 계속됐지만 골은 울산에서 터져나왔다. 후반 21분 울산 공격수 김신욱이 김영삼이 박스 오른쪽 지역에서 뛰어온 공을 받아 헤딩슛을 날리며 0-0의 균형을 깼다. 후반 11분 교체해 들어왔던 김신욱은 196cm의 큰 키를 활용한 헤딩골로 광주에 시즌 첫 패를 안겨줬다.

꼴이 터진 후 흐름은 울산으로 기울었다. 후반 11분 주앙파울로를 그라운드에 올린 최민희 감독은 후반 18분 김동섭을 조우진으로 교체하며 두 번째 교체카드를 냈다. 후반 29분에는 안동혁 대신 임선영을 투입하며 경기 흐름을 바꾸려고 했지만 울산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하면서 안방에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풀이 터진 후 흐름은 울산으로 기울었다. 후반 11분 주앙파울로를 그라운드에 올린 최민희 감독은 후반 18분 김동섭을 조우진으로 교체하며 두 번째 교체카드를 냈다. 후반 29분에는 안동혁 대신 임선영을 투입하며 경기 흐름을 바꾸려고 했지만 울산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하면서 안방에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 최민희 감독은 “4월 흄 마지막 경기였는데 팬들에게 이기는 경기를 하지 못해서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상대가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후반에 승부를 끄우려고 했는데 실점을 하면서 공격에서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이 아쉽다. 하지만 움직임이 활발해서 좋았고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칭찬해 주고 싶다. 다시 불을 지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승점을 더하지 못한 광주는 3승2무1패(승점 11)로 주말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한 제주·울산·포항에 밀려 2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김여울기자 wool@kangju.co.kr



리비운드 쟁탈전 8일 NBA 농구 미네소타 팀버ول브스와 뉴올리언스 호넷츠의 경기. 미네소타의 파워 포워드 캐빈 러브(왼쪽에서 두번째)와 뉴올리언스의 센터 크리스 케이맨(왼쪽에서 세번째)이 리비운드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결승골 도움…셀틱 우승 확정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킬마녹 6-0 대파...승점 81

기성용이 선발출장한 경기에서 셀틱이 킬마녹을 꺾고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다.

셀틱은 지난 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의 럭비파크에서 열린 킬마녹과의 경기에서 6-0으로 크게 이겨 남은 경기에 관계 없이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하게 됐다.

기성용은 이날 그라운드를 풀타임으로 누비며 첫 골의 도움을 기록했다.

셀틱은 초반부터 매서운 기세로 킬마녹을

몰아세웠다.

경기가 시작된 지 8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멀그루의 선취골로 상대의 골문을 연 셀틱은 전반에 3골을 더 추가해 4-0으로 크게 앞서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셀틱은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3분과 45분에 레플리와 후퍼가 각각 골을 하나씩 추가,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승리로 26승3무4패(승점 81)를 기록한 셀틱은 2위 레인저스(22승4무6패·승점 60)를 따돌리고 4년 만에 리그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선덜랜드

는 지동원이 결장한 가운데 치러진 경기에서 토트넘과 0-0으로 비겼다.

11승9무12패(승점 42)를 기록한 선덜랜드는 8위 자리에 물들었다.

구자철이 시즌 4호 골을 뽑아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는 바이에른뮌헨에 1-2로 패했다.

구자철은 1-0으로 끌려가던 전반 23분 악셀 벨링하우젠이 연결해준 공을 받아 오른발로 마무리해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는 선제골의 주인공 마리오 고메즈에 후반 15분 결승골을 얻어맞고 무릎을 뚫었다.

기성용은 43.05%로 다소 낮은 공격성공률(득점 38)을 보였지만 서브 에이스로 5득점

/연합뉴스

‘가빈 38점’ 삼성화재 우승 눈앞

정혜민·김영석 금메달

세계청소년 태권도선수권

우리나라가 세계청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주했다.

정혜민(부산 부흥고)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집트 사우엘-세이크 커버드홀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여자 42kg급 경기에서 대만의 린 완탕과 득점 없이 3회전을 마친 뒤 연장전에서 먼저 득점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63kg급에 출전한 이현율(경원사대부고)은 결승 연장전에서 요로단의 아흐메드 아부가우쉬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한편 사흘째 경기에서 남자 55kg급의 김영석이 프랑스의 딜란 젤라무투를 13-2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남자배구 챔피언결정전 2연승

남자프로배구 삼성화재가 챔피언결정전에서 2연승을 달렸다.

삼성화재는 8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승제) 2차전에서 ‘속적’ 대한항공을 3-1(25-19 24-26 25-22 25-21)로 꺾고 챔피언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대한항공은 약간은 불안한 모습으로 뉴스 끝에 2세트를 따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3세트를 챙기고 전세를 다시 돌려놓았다.

4세트 들어 삼성화재는 5-10의 열세에서 박철우가 2연속 블로킹 득점 7을 쓰아

팀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가빈은 43.05%로 다소 낮은 공격성공률(득점 38)을 보였지만 서브 에이스로 5득점

을 뽑아 ‘서브 1위’인 마틴의 기를 놀렸다.

대한항공은 좋은 수비를 펼쳤지만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 패인이다.

삼성화재는 여유롭게 1세트를 가져갔다.

가빈은 1세트에만 서브 에이스로 4점을 뽑아 대한항공 리시브를 무너뜨렸다.

대한항공은 약간은 불안한 모습으로 뉴스 끝에 2세트를 따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3

세트를 챙기고 전세를 다시 돌려놓았다.

4세트 들어 삼성화재는 5-10의 열세에서

박철우가 2연속 블로킹 득점을 올려 리듬을

되찾아왔다. 이후 점수를 좁혀가던 삼성화

재는 역전에 성공, 4세트마저 따내며 2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잔고 증명 전문

사회복지법인설립 | 국가에산지원신청

“노인,장애인,평생교육원,대학학교

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서류 전문!

각종잔고증명 | 통장사본 필요하신분

※다음카페 : 광주제한산화재

T.011-646-3450.011-616-5917

4월19일(목)

▶biggo를 목표선언의 전복 진안군 마련면 미아산 4월15일(일) 6시20분 대야트레일

(30) 양주군구회 40분 양주군구회 4월17일(화) 7시 40분 후문구회 4월18일(수) 6시30분 미트마트월드

클럽 4월19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전 4월20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전 4월21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전 4월22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전 4월23일(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전 4월24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전 4월25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전 4월26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8전 4월27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9전 4월28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0전 4월29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1전 4월30일(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2전 4월31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3전 5월1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4전 5월2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5전 5월3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6전 5월4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7전 5월5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8전 5월6일(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19전 5월7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0전 5월8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1전 5월9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2전 5월10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3전 5월11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4전 5월12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5전 5월13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6전 5월14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7전 5월15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8전 5월16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29전 5월17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0전 5월18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1전 5월19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2전 5월20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3전 5월21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4전 5월22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5전 5월23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6전 5월24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7전 5월25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8전 5월26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39전 5월27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0전 5월28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1전 5월29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2전 5월30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3전 5월31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4전 5월32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5전 5월33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6전 5월34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7전 5월35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8전 5월36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49전 5월37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0전 5월38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1전 5월39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2전 5월40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3전 5월41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4전 5월42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5전 5월43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6전 5월44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7전 5월45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8전 5월46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59전 5월47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0전 5월48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1전 5월49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2전 5월50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3전 5월51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4전 5월52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5전 5월53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6전 5월54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7전 5월55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8전 5월56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69전 5월57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0전 5월58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1전 5월59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2전 5월60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3전 5월61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4전 5월62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5전 5월63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6전 5월64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7전 5월65일(토)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8전 5월66일(일)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79전 5월67일(화)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80전 5월68일(수)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81전 5월69일(목)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82전 5월70일(금) 6시30분 미주제육관 광주역, 제83전 5월71일(토) 6시30분 미주제육